

2023 겨울
제4호

GLOCALISM QUARTERLY

매거진



Theme

“스타트업 코리아와 지방외교”

국내 지방외교 활동 |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해외 지방외교 활동 | 협의회 미국사무소, 프랑스사무소, 영국사무소

지방외교 협력파트너 | 산업연구원, 경기연구원

지방외교 뉴스 | 한-중앙아 지방협력 원탁회의, 주한외국공관장 초청 간담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GOVERNOR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GOVERNOR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OTENTS

01

국내 지방외교 활동

- [대구광역시] 4
하늘길로 세계와 교류하는 글로벌 거점도시로 성장
- [광주광역시] 8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의 내☆일이 반짝인다
- [세종특별자치시] 12
차별화된 지방 국제교류의 시작, 글로벌 행정 수도로의 도약
- [제주특별자치도] 16
글로벌 가치추구로 대한민국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제주 특별자치도



02

해외 지방외교 활동

- [협의회 미국사무소] 20
'스타트업 코리아' 시대 열린다.....기회 잡아야
- [협의회 프랑스사무소] 24
스타트업 네이션 프랑스, 지방외교에도 스타트업이 주인공
- [협의회 영국사무소] 28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영국정부의 노력과 지방외교



03

지방외교 협력파트너

-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본부] 32
김정호 부연구위원 / 지역 예비유니콘의 현황과 시사점
-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34
성영조 선임연구위원 / 실리콘밸리 혁신 생태계



04

지방외교 뉴스

- [한-중앙아 지방협력 원탁회의] 38
제1회 한-중앙아 지방협력 원탁회의 개최
- [주한외국공관장 초청 간담회] 40
제14회 주한외국공관장 초청 간담회 개최



대구광역시 지방외교 활동



▲ 림 칭 킷 창이공항그룹 부회장을 만나 창이공항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신공항 운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개항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인천공항에 집중되어 있는 항공 물류 여객의 30% 이상을 책임지는 글로벌 첨단물류·여객 복합공항으로 조성하여 유사시 인천공항의 역할을 대체하는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거점으로써의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신공항 배후에는 첨단산업단지과 에어시티를 조성하여 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초거대 新경제권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의 대구공항이 빠져나간 후적지는 두바이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의 장점만을 흡수하여 최첨단 미래 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신성장 도시로 건설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통합신공항 발전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두바이 현지를 방문하여 공공주도형 개발방식 설명회에 참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시개발 선진사례를 시찰하였다. 또한 대구공항과 같이 민군 겸용 공항이지만 커뮤타임(운항제한시간)없이 운영되는 글로벌 물류허브공항인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방문, 림

칭 킷 창이공항그룹 부회장을 만나 창이공항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신공항 운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실리콘밸리와 손잡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를 참관하고 실리콘밸리 대표 창업육성기관인 플러그앤플레이(PNP)와 MOU를 체결,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PNP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벤처투자사 겸 창업육성기관으로 페이팔, 드롭박스 등 35개의 유니콘기업을 포함하여 1,600개 이상의 기업을 발굴·투자한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이며 최근 벤츠,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세계 각지에서 60개 이상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혁신 플랫폼이다.

이번 MOU를 통해 대구시와 PNP는 ▲대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 ▲미래 ICT 산업 육성을 위한 ABB 산업 동향 공유와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기술 전환 혁신 워크숍 개최 ▲PNP 대구 지사 설립으로 성공적 파트너십 확장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실리콘밸리 유망 벤처기업가들로부터 미국의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 성공 노하우를 듣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업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한인 여성 최초로 미국 스탠퍼드대 종신교수로 임용된 이진형 대표가 창업한 뇌질환 진단 및 치료기업 엘비스(LVIS)와

• 대구광역시, 하늘길로 세계와 교류하는 글로벌 거점도시로 성장

대구광역시는 지난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7월에는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됨에 따라 새로운 경제발전축을 완성하고 대구 미래 50년 설계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서 2030년

▼ 대구광역시-눈닷컴社 지역기업 중동진출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식_2023.05.18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눈닷컴 본사



▲ 대구시-플러그앤플레이 미래산업육성 MOU_23.01.05,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 C-LAB 아웃사이드 대구거점 개소식_ 2023.02.22,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구글 엔지니어 출신 하정우 대표가 창업한 세계 최초 자율주행 서빙 로봇 기업인 베어로보틱스가 참가한 간담회에서 글로벌 브레인 클러스터 조성, 로봇 및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2023에 대구 지역의 31개 중소·벤처기업이 참가하여 1억 달러에 달하는 상담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대영채비(주)는 전기차 충전기와 연동한 '충전 선점 시스템(Prebook system for EV charging)'으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역대급 성과를 거두었다. 대구시는 이번 전시회 참관을 통해 실리콘밸리 글로벌 기업들과의 성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으며, 대구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신산업 분야에서의 도약을 발판으로 대구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갈 계획이다.

• 지역의 한계를 넘어, 대구를 스타트업 허브로

대구광역시와 삼성전자는 옛 제일모직 부지에 위치한

삼성창조캠퍼스를 스타트업 허브로 육성하고 지역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삼성전자는 23년 2월 대구 삼성창조캠퍼스에 C-Lab Outside의 첫 번째 지역거점인 대구캠퍼스를 개소했다. C-Lab Outside는 삼성전자가 2012년에 시작한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 C-Lab Inside를 2018년부터 외부로 확대하여 운영해 온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C-Lab Outside를 통해 매년 지역의 혁신 스타트업 5개사를 선발하여 삼성창조캠퍼스 내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최대 1억원의 사업지원금과 단계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구 삼성창조캠퍼스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오페라하우스 등 스타트업과 문화예술 공간이 어우러져 있는 곳으로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제일모직의 첫 섬유공장을 세운 장소이다. 한편, 23년 11월 홍준표 시장은 김완표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등 삼성 수뇌부와 만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참여에 대해 논의하는 등 글로벌 기업 삼성의 출발지인 대구에서 대구시와 삼성전자가 함께 그려갈 새로운 미래를 기대해 본다.

• 글로벌 도시 외교 강화를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

대구광역시는 코로나 19로 위축되었던 국제교류를 본격적으로 재개하여 2022년에는 중앙아시아 지역 핵심 거점인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주와 우호협력도시 협약(MOU) 체결, 인도네시아 반둥시와 교류협력의향서(LOI)를 교환한 데 이어 2023년 5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다토 하스니 말레이시아 조호경제문화관광청 사장을 단장으로 한 조호주 대표단 20여 명이 지난 9월 대구시를 답방하여 첨단산업과 그린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동반 성장의 가능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다. 말레이시아 조호주의 주도로 최남단에 위치한 조호바루시는 조호르 해협을 사이에 두고 싱가포르와 연결되어 있으며 지리적 위치, 우수한 치안, 정치적



▲ 말레이시아 조호주 술탄 이브라힘(차기 말레이시아 국왕) 환담_ 2023.05.23, 조호주 술탄왕궁



▲ 대구시-말레이시아 조호바루시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_ 23.05.23,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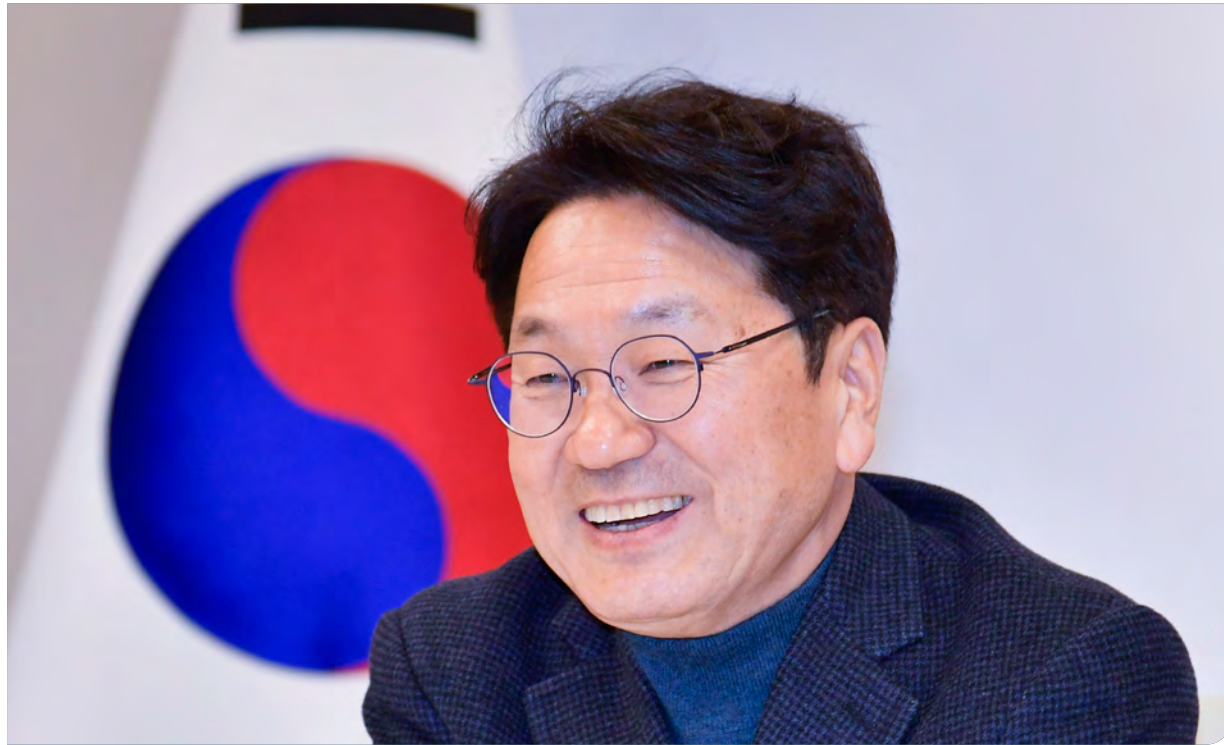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유망한 투자지역으로 꼽힌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가 조호바루 이스칸다르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 허브와 통신산업 요충지로 구축할 계획에 있어 ABB 산업을 비롯한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대구시와 활발한 교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조호바루시와의 MOU 체결 당시 양 도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만난 조호주의 술탄 이브라힘은 입헌군주국인 말레이시아의 차기 국왕으로 선출(23년 10월)되어 24년 1월 31일부터 국왕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는 미래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도시 간 글로벌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국제협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말레이시아 조호주 대표단 대구시 방문_23.09.27, 대구시청

광주광역시 지방외교 활동



▲ 광주비엔날레 예술의 날

광주는 기회의 도시다.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중심도시로,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로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4차산업혁명만은 광주의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 다른 지역이 SOC사업과 안정을 택할 때 광주는 '인공지능(AI)'과 도전을 택했다. 광주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창업기업을 키우기 위해 도시 전체를 실증의 공간으로 바꾸고, 예산은 '미래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당장 1, 2년 앞이 아닌 10년, 50년 뒤의 새로운 미래에 투자했다. 그래야만이 청년이 머물고, 도시에 활력이 돌며, 시민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역사를 혁명했던 도시가 이제는 '내 삶'을 혁명하는 도시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로 반짝인다.

•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

광주광역시는 인공지능(AI)과 미래차를 양 날개로 9대 대표산업의 도약을 준비하는 동시에 전 세계가



▲ 호남 최대 규모 광주역창업밸리 조성 및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비전 발표

신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세계적 수준의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고, 14년 만에 '100만평 미래차국가산단'과 '소부장특화단지'를 유치하는 호재가 잇따르면서 광주의 산업 기반은 탄탄해지고 있다.

창업성공률이 높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라는 필요조건과 엔젤투자자·창업기업·벤처캐피탈 등이 '광주에 올 수밖에 없는' 충분조건이 맞물려야 가능한 일인 만큼 투자-인프라-인재로 연결되는 창업성장 사다리 완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는 민선 8기 창업성공도시 종합계획을 마련, 2027년까지 신규 25개 사업을 포함해 총 4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창업도시 완성 3대 전략 '투자·인프라·인재'

창업성공의 첫 열쇠 '투자'...5000억 창업펀드 '속도' 창업성공의 첫 열쇠로 꼽히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는 5000억 창업펀드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인공지능(AI)·문화 산업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기술력 있는 유망 스타트업이 보다 쉽게 투자받을 수 있도록 기술창업기업을 위해 326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하고 창업기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창업성장사다리 펀드'를 신규 조성해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광주역 창업밸리' 거점 확보

창업 인프라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창업 인프라의 핵심인 '광주역 창업밸리' 완성을 위해 스타트업·투자자·창업기관 등이 한곳으로 모이는 거점공간을 확충한다. 창업성장의 거점인 광주역창업밸리에 더해 이미 구축돼 있는 AI창업캠프1·2호, I-PLEX,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 2023광주창업페스티벌



▲ 중국총영사와 광주비엔날레 중국 파빌리온 관람

등과 인공지능(AI)집적단지 창업실증동이 연결되면 도시 곳곳에 창업인프라가 깔린다.

“광주를 빌려드립니다”...도시를 실증공간으로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광주에 와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실증 테스트베드화 한다. 창업기업의 제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되기 위해서는 ‘실증’이 가장 중요한 만큼 민선 8기 광주시는 ‘실증도시팀’을 신설해 전폭 지원하고 있다. 기업은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광주에서 실증하고, 시민들은 누구보다 먼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광주시 전역 인프라 연계를 통한 기술·서비스 검증 및 판로개척, 직·간접 투자유치 지원 등 후속 지원을 통한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사업 등도 지원한다.

창업성공의 마지막 퍼즐 ‘인재양성’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어린이상상놀이터-영재고-융합대학-대학원을 비롯해 전문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AI)사관학교, NHN아카데미, 삼성전자 반도체계약학과, 구글클라우드 인공지능(AI) 캠프까지,

아동-중등교육-대학-전문인재양성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인재양성 사다리를 완성하고 있다.

•• '모두가 기업의 홍보맨' 광주광역시의 파격 세일즈

‘모두가 기업의 홍보맨이 돼야 한다’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파격 선언은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실현에 속도를 높이는 핵심으로 꼽힌다. 구글, 블룸버그, 지멘스 등 세계적 기업이 광주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 또한 광주시의 세일즈 정책과 함께 맞물린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된 국제교류 활성화에 힘을 쏟은 결과, 민선 8기 이후 만난 각국 대사와 대표들은 36개 국가가 넘는다. 지난해 8월 필립 S.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접견을 시작으로 독일, 일본, 중국,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베트남 등 40여회에 달하는 영상회의와 접견을 진행했다.

광주광역시는 국제교류 지평 확대를 위한 해외·자매 우호도시 다각화 및 교류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10월에는 베트남 응에안성과 자매도시를 맺고 올해 8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와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앞으로도 기존 해외 교류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권역별 신규교류도시 발굴을 통해 새롭게 시작한 ‘창업페스티벌’ 등 글로벌 창업생태계와 교류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실리콘밸리 구글 본사를 방문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인재양성에 본격 나섰다. 또 미국, 독일 등 지방외교를 적극 활용 인공지능(AI)과 문화교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는 문화예술과 인공지능·빅데이터 중심도시를 내세워 국제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며 세계 3대 비엔날레로 꼽히는 광주비엔날레 등 문화콘텐츠 요소를 지방외교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각국 주한대사를 초청해 광주의 문화예술을 알린 ‘제1회 광주비엔날레 예술의 날’ 등을 개최했다. 이같은 노력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도시외교는 각 도시만의 고유한 경험을 공유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최대규모로 치러진 전시관인 파빌리온은 큰 인기를 끌었고 내년 창설 30주년인 제15회 비엔날레에서는 광주시 전역에 파빌리온 국가관을

20개국 이상 확대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도시외교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독일 라이프치히 부르크하르트 용 시장 면담



▲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제투자유치포럼



▲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양궁연맹 총회에서 2025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연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외교 활동



• 차별화된 지방 국제교류의 시작, 글로벌 행정 수도로의 도약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 계획에 의해 조성이 추진되는 도시다. 출범 11년이 지나면서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47개 중앙정부기관이 자리를 잡는 상전벽해의 기적을 일궜다. 지역적으로도 대전과 청주, 공주 등 충청권 주요 도시와 인접한 곳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라는 정체성 뚜렷한 인구 40만의 중견도시로 자리를 잡았다.

세종의 이러한 도시건설 경험은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누산타라'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건설에도 큰 영감이 됐다.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세종시 경험을 벤치마킹하기로 공식화하면서 인니 정부 관계자들의 세종시 방문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세종시는 이러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써 정체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지방 국제교류를 시도하고 있다.



▲ 세종-소피아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 (2023.11.9.)

글로벌 행정수도로의 도약을 위해 세계 각국의 수도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가고 있다. 대상 도시는 불가리아 소피아, 영국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튀르키예 앙카라 등이다. 지난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이후 10년간 협약을 맺은 우호도시는 8개 국가 9개 주요 도시에 이른다. 세종시는 스마트도시, 경제, 문화, 통상 분야에서 넓어진 국제교류를 기반으로, 글로벌 미래전략수도로 성장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종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교류를 시작하여 성공을 거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021년 유럽연합에서 주최한 국제도시 지역 협력(EU International Urban Regional Cooperation) 프로그램에 따라 세종시는 불가리아 소피아시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실무회의(5회), 소피아시 지방 정부 대표단 방문 및 협력 의향서 체결(22.8), 세종시 대표단의 소피아시 방문에 따른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22.11) 등 정기적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그 결과 EU IURC 프로그램의 대표

교류 우수 도시로 선정되어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원회에 초대되어 교류 사례를 발표하는 등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의 도시 브랜드 제고 및 국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글로벌 한글 문화 중심 도시 세종

세종시는 2022년 11월 불가리아 수도인 소피아시를 방문해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하고, 이후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로 불가리아 고유 문자인 '숨겨진 글자 킬문자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 전시회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불가리아에서 킬문자가 창제되었다는 공통점에 기반하여 시와 주한불가리아대사관, 한국국제교류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특히 외국 도시와의 교류 협력 관계를 돈독하게 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한글의 우수성 또한 소피아시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음악, 화장품, 드라마, 영화, 음식



▲ 숨겨진 글자(Hidden Letters) 전시회 방문(주한불가리아대사/2023.1.30.)

등으로 인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물론 한글 배움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대 대응하여 세종시는 한글문화단지 조성하고 세종시만의 다양한 한글 특화사업과 한글문화 자산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세계 각국 도시와 교류하며 한국어 및 K-문화를 보급, 확산하는 등 한글문화 교류 중심지라는 원대한 꿈이 영어로 가고 있다.

• 스타트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한 신뢰 정부 플랫폼 세종

세종시는 유럽연합 소속의 불가리아가 유럽 시장으로 진출을 위한 관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을 비롯한 관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 기능에도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22년 8월 불가리아 소피아시 대표단이 세종시를 방문한 일이다. 당시 소피아시 대표단은 세종시의 친환경 태양광 시설을 시찰하고 큰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세종시는 유럽 시장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시설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내 기업의 유럽 진출을 도모했다. 유럽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관내 에너지 설비 관련 업체를 발굴하여 불가리아 투자청과 시장 진출에 대한 협의를 지원했다. 그 결과로 불가리아 현지 에너지 기업과 합작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등 시장 판로 개척을 활발한 통상 교류를 이어 나가고 있다.

또한 불가리아와 농업과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도 추진 중이다. 불가리아는 전 세계 장미 기름 생산량의 80%를 책임질 만큼 양질의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국가다. 이에 세종시는 불가리아의 장미 추출물 활용을 희망하는 관내 화장품 업체를 발굴하여 제품 공동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업 간 연결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지난 2018년 1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된 경험을 강점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관점에서 국제교류를 위한 다양한 시도로 스타트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도시에서의 스마트 혁신기술, 서비스 실험도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 기술을 소유한 스타트업이 세종뿐만 아니라 해외도시에서의 실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세종시와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 경제와 기술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진정한 교류는 서로의 문화에 녹아드는 것

지난 8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대회 당시의 위기는 세종시와 불가리아 간 우정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당시 폭염과 태풍으로 세계 각국 대원이 퇴영을 결정하기 전 세종시는 선제적으로 불가리아 대원을 초청했다. 불가리아 미래의 주역이 될 스카우트 대원들은 시민의 환대 속에 과거·현재·미래가 어우러진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둘러보며 세종시가 믿을 수 있는 우호 협력 파트너임을 재확인했다. 세종시는 세계 주요도시와의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종시가 불가리아 대원을 초청한 것도 진정한 교류는 서로의 문화에 녹아드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세종시는 시정과 관련된 주요 일정을 세계 각국 우호협력 도시와 공유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특히 세종시는 오는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세계에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을 알리는 기회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풍부한 녹지와 다양한 정원 기반을 활용해 추진하는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위해 불가리아 소피아시와 장미정원 공동 조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불가리아에서 자란 장미를 반입하였으며 격리 과정을 거친 이후 현재 생육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세종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주요도시와 협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종은 물론 충청권과 대한민국 전체의 번영을 위해 정부 차원의 국제외교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알리고, 세계 속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앞날을 함께 응원해주시기를 바란다.



▲ 불가리아 상공회의소장, 주한불가리아대사와의 면담 / 2023.10.19.



▲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대회 불가리아 대원 세종시 초청 및 환송 / 2023.8.1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외교 활동



• 태평양을 외교 무대로-제주-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

제주는 대한민국 최남단에 있는 섬이지만 태평양을 중심으로 관점을 바꾸면 제주는 세계를 향한 전진기지이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플러스알파 정책은 이러한 제주의 지정학적 장점을 활용해 중국, 일본에 편중됐던 제주의 외교 영역을 환태평양 전역, 중동까지 다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는 7억, 경제 성장률 또한 연간 5% 수준으로 이미 아세안은 제주의 핵심 수출시장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아세안 수출 비중은 2021년 13.3%에서 2022년 18.7%로 증가했고 반도체와 농산물, 게임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 미래지향적 가치에서 제주가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도 크다.



▲ 2022년 9월 17일 제주아세안홀 개관식



▲ 2023년 6월 23일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개소식

제주는 지난 6월 아세안플러스알파 정책 거점으로 싱가포르 해외사무소를 개소했다. 현재 베트남 남딘성과 맺은 교류 협약에 따라 외국인 계절 노동자가 제주 농가에서 일하고 있다. 아울러 네트워크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협력관계 도시를 늘리고, 아세안 도시와의 직항로 개설과 제주상품 수출 판로 확대 논의 또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제주가 가진 장점과 잠재력을 활용해 제주만의 지방외교를 펼침으로써 동남아, 중국은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외교무대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 제주의 지방외교 성과

글로벌 현안에 대한 국가 간 협력과 외교가 부진한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 개발협력 증진, 인적 및 물적 교류 확대 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그동안 우정을 쌓아온 해외 도시와 국제기구, 협의체 등과 교류하며 ‘제주’라는 브랜드와 제주가 가진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미래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도시들과 소통하면서 제주의 비전을 알리고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1999년 북한에 감귤을 보낸 비타민 C외교의 성공적 경험과 2002년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평화외교를 추진해 ‘세계평화의 섬’이라는 상징성은 제주가 지방외교를 추진하는 데 큰 자산이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이러한 제주의 경험과 자산을 살려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뒀다. 우선 교류도시를 확대해 교류 다양성을 확보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유럽지역인 스페인 갈리시아주와 실무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돌하르방과 제주올레 상징물이 설치돼 제주를 알렸고, 제주올레 1코스에는 갈리시아주 상징물이 설치됐다. 제주포럼을 계기로 1986년 하와이주 이후 두 번째로 미국 메릴랜드주와의 실무교류협약을 맺었다.

두 번째는 제주 외교무대를 확장하는 아세안플러스알파 정책을 시작했다. 아세안플러스알파 정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8월 1일에는 베트남 다낭과 실무교류협약을



▲ 2023년 10월 23일 2023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체결했고, 12월 1일에는 태국 방콕과 실무교류협약을 맺었다. 이외에도 캄보디아 시엠립, 필리핀의 세부, 말레이시아 페낭 등 다양한 도시들과 관광, 문화, 인적교류를 준비하고 있다. 2024년 2월에는 아랍에미리트 샤르자와의 실무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중동지역과의 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과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직항로 개설 등 통상물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와 플랫폼을 구축해 외교 실익을 높여나가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현재 베트남 남딘성과 인적교류, 수산물 수출 논의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세 번째는 도민 참여 공공외교의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에서 네 번째로 문을 연 국민외교센터에서는 지방외교 관련 다양한 세미나와 네트워크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제주-아세안홀에서는 상설전시로 아세안 문화를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 제주의 글로벌 가치를 드높힐 스타트업

제주는 유네스코로부터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으로 잇달아 등재·선정되었다. 제주는 이를 적극 활용해 제주를 평화와 협력, 생태와 환경 등을 브랜드로 하는 차별화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해하고 있다.

특히, 제주는 천혜의 자연과 인프라를 활용해 위케이션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원격근무와 분산근무로 국내외 기업들이 위케이션에 관심이 높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2022년 수도권 ICT 기업 대상으로 위케이션 프로그램을 약 3개월 운영했다. 총 51개사 192명 참여했으며 만족도가 높아 재참여 의사가 100%로 조사됐다. 위케이션 활성화와 제주만의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도 마련했다. 지난 10월에는 싱가포르에서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주의 기업환경과 위케이션 정책을 홍보하는 설명회를 열었고, 현지 기업관계자와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국외기업이 국내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로로서 제주 위케이션 오피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도내 민간 위케이션 산업과 협력을 확대나갈 계획이다.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산업은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전환을 꾀하고 있다. 제주관광스타트업(일명 J-스타트업)은 잠재유망기업들을 대상으로 통합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해 단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해녀의 부엌, 다자요, 우무, 디스커버제주, 제주미니, 슬리핑라이언, 배러댄서프 등 제주를 찾고 체험했던 젊은 감각의 관광객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고 접했을 법한 프로그램들이 제주관광스타트업 출신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들은 2023년 상반기 기준 29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77억 원의 투자유치와 더불어 295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실질적인 성과도 올리고 있다.

제주는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새로운 도전도 이미 시작했다. 에너지대전환 비전을 통해 전국에서 최초로 그린수소 버스를 운행중이고, 제주의 지리적 입지를 살려 민간우주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최초로 관광형 UAM을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월 제주에서 개최한 '2023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은 제주의 미래 에너지 비전을 세계에 알리고 에너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국가, 기업들과 그린수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방외교의 장이었다.

이번 포럼은 그린수소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과 연대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 처음 개최되었다. 포럼에 참석한 스벤 올링 덴마크 주한대사가 내년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월드 수소 주간'에 제주를 초청해 그린수소 정책 공유 제안했고, 제주가 만드는 그린수소 생태계에 국내외 전문가와 기업들이 호응하고 동참의사를 밝혔다. 앞으로 제주는 모든 산업과 생활영역에서 그린수소로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제주가 지방도시 차원의 국제적인 협력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우주산업에서 유망한 스타트업들도 제주를 찾고 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시드머니 투자사업으로 우주 지상국 데이터 송수신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컨택이 지난 11월 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앞으로도 제주에서 스타트업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외 스타트업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제주'에서 다양한 도전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2024년 제주의 외교는

2024년 제주는 그간 쌓아온 '글로벌 가치'를 확산시키고 도민을 위한 실익외교를 펼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제주로 향하는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의 관광과 통상 교류를 확대하고 문화·교육·인적 교류로 확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늘길과 바닷길을 포함한 직항로 개설이다. 태국과 싱가포르, 중국 등을 방문했을 때 직항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교류 영역을 다변화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플러스알파 정책을 기반으로 지난 6월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개소했고, 실질적인 수출 증가 및 관광객 다변화 등 도민들의 실리를 위한 다양한 교류협약도 추진해왔다. 제주가 추구해 온 평화와 생태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교류 영역을 확대해왔고, 특히 공무원 상호교차 근무와 학생 체류형 교류 등 인적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4년 2월 UAE 샤르자 세계문화주간에 제주가 주빈으로 초청받아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유네스코 등재에 빛나는 제주해녀문화와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보임으로써 중동 지역에서 제주의 글로벌 가치를 증명하고 알릴 좋은 기회이다. 제주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제주가 선도하는 민간우주산업과 그린수소 등 미래산업의 비전도 공유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제주는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자연유산을 지키고 보존하며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인류보편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며 테스트베드의 최적지로서 선도적인 정책과 산업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러한 제주의 자산과 강점으로 제주가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충분하다.

글로벌 문제들은 결국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다. 제주포럼을 통해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고 필요할 경우 주요 아젠다를 중심으로 국제네트워크 혹은 국제협의체 구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에 창설해 제주도가 주도하는 '글로벌평화도시연대'를 통해, 참여 도시들과 의제를 설정하는 등 상설화된 국제기구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 2023년 10월 26일 싱가포르 위케이션 설명회

'스타트업 코리아' 시대 열린다.....기회 잡아야

박원익(Park Wonick) 더밀크 뉴욕플래닛장



▲ 잭 비처(Zach Beecher) 아메리카 프론티어 펀드(America's Frontier Fund, AFF) 전략적 파트너십 총괄 (출처: 박원익 더밀크 뉴욕플래닛장)

최근 미국 내에서 한국 스타트업이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 정부, 투자사, 기업이 한국스타트업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트업 행사들이 활발히 열리고 있다. 미중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높은 기술력, 숙련 인력을 보유한 한국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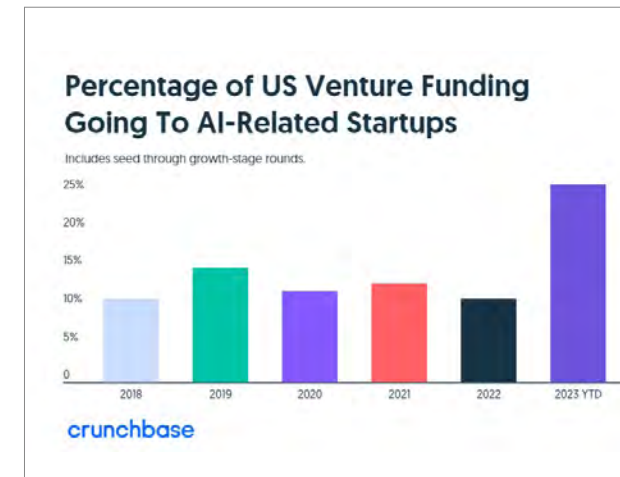
2023년 11월 1일 한국혁신센터(Korea Innovation Center) 워싱턴 D.C. 가 주관한 스타트업 행사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잭 비처(Zach Beecher) 아메리카 프론티어 펀드(America's Frontier Fund, AFF)¹⁾ 전략적 파트너십 총괄은 “한국 창업 생태계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며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희망했다.

또한 “한국은 사실상 스타트업 국가라고 할 수 있다”라며, “한국 인구의 24%는 어떤 식으로든 스타트업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인구의 스타트업 연관 비율은 중국의 두 배에 달하며 이는 한국의 높은 교육 수준, 기술 및 창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다.

현재 AAF를 비롯한 다양한 미국 투자회사와 미국 정부관계자들이 한국에 투자하거나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돕는 방식으로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 미, AI 전략적으로 육성... 민간 생태계 지속 성장



▲ AI 스타트업 투자 비중 추이 (출처: 크런치베이스)

11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오픈AI의 첫 개발자 콘퍼런스 ‘데브데이(OpenAI DevDay)’에는 수백명의 개발자들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루었다. 주요 발표를 포함한 기조연설이 생중계됨에도 현장에 참석하려는 개발자가 몰리며 일찌감치 신청이 마감되었다. 이는 미국의 AI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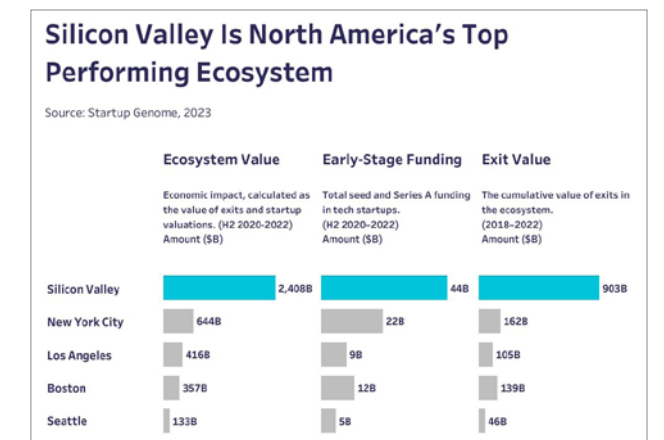
미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과 전 세계 유동성 긴축으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관련 생태계는 지속해서 성장했다.

크런치베이스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미국 VC가 투자한 금액 중 약 4분의 1은(26%) AI 스타트업에 돌아갔다. 이는 2022년(11%) 대비 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한편 블룸버그가 집계한 피치북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전 세계 스타트업 투자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한 상태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민간 분야에서 전략적 투자를 이끌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에는 ‘뇌 밸리(Cerebral Valley)’라고 부르는 일종의 AI 스타트업 클러스터까지 생겼다. 미국 정부도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AI 스타트업 육성을 장려하는

분위기다. 지난 10월 30일에는 이 분야 헤게모니 유지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AI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 실리콘밸리·뉴욕, 공고한 투톱... 선순환 문화가 핵심



▲ 미국 주요 도시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출처: Startup Genome)

미국 내에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가장 발달한 곳은 어디일까. 스타트업 게놈(Startup Genome)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와 뉴욕이 줄곧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5000만달러 이상 10억달러 미만의 엑시트(상장 혹은 인수합병) 건수, 증가율, 스타트업의 추가 투자 유치 비율, 엑시트에 걸리는 속도, 해당 지역의 시장 규모, 인재, 지식, 소속감(connectedness) 등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2023년) 실리콘밸리가 59점을 기록했고, 뉴욕이 56점을 기록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핵심지인 로스앤젤레스가 4위(52점), 바이오, 생명과학 분야의 훌륭한 연구 인력을 확보한 보스턴이 6위(51점)에 올랐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본사가 위치한 시애틀, 백악관, FDA 등 규제 기관이 밀집한 워싱턴 D.C.가 각각 10위(41점), 11위(35점)를 기록했다.

2023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지역 중 하나는 마이애미다. 2022년보다 10계단 상승한 23위(23점)를 기록했다.

실리콘밸리는 오랜 기간 축적된 창업가 집단과 성공한 창업자들의 스타트업 투자 문화가 전 세계 어느 곳보다 활발한 곳이다. 선배 창업가들이 후배 창업가의 성공을

1)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AFF는 미국의 혁신, 안보, 제조 능력 증진을 위해 첨단 기술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벤처캐피탈(VC)이다. 일반 투자자뿐 아니라 과학자, 정책 전문가, 국가 안보 리더가 이 펀드에서 함께 활동한다.

돕고, 이를 통해 투자 수익도 얻는 선순환 시스템이 정착돼 있다. 유명 창업가, 기업가가 신생 기업의 엔젤 & 시드(seed) 투자에 참여하는 사례가 매우 흔하다.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본사가 있는 멘로파크에 위치한 샌드힐로도 중요한 인프라다. 클라이너 퍼킨스, 세쿼이아 캐피탈, 앤드리슨 호로위츠, Accel, NEA, 코슬라 벤처스, 그레이록 파트너스 등 유명 VC들이 모두 이곳에 모여 있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생태계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뉴욕은 월스트리트라는 강력한 투자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강점이 있다. 월스트리트 투자사들은 주로 상장을 앞둔 후기 스타트업에 투자하지만, 최근 더 빠른 시기에 투자해 수익을 노리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컬럼비아, NYU, 코넬, 프린스턴(뉴저지) 등 아이비리그에서 배출하는 탁월한 인재들이 넘친다는 점도 뉴욕의 특징이다. 기술뿐 아니라 푸드, 패션 등 문화 예술계 인재도 많아 다양한 산업군에 걸친 창업이 활발하다. 미국에서 가장 큰 소비자층(인구 기준 미국 최대 도시)도 보유하고 있다.

메타에서 AI 개발을 총괄하는 안 르쿤 NYU 교수를 필두로 한 AI 인재들이 모여 있어 최근에는 AI 스타트업

투자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오픈AI가 인수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Global Illumination), 큰 투자를 유치한 런웨이(Runway AI), 허깅페이스(Hugging Face) 본사가 뉴욕에 위치해 있다.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에 위치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뉴랩(Newlab)'도 혁신 클러스터로서 스타트업의 요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미국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 및 시사점

미국 혁신의 근간은 민간 중심으로 형성된 스타트업 생태계에 있다. 한데, 이런 민간 주도 생태계는 '경쟁 최우선'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가능했다. 경기를 주관하는 심판 역할을 하는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 불공정 경쟁을 막고, 적절한 지원 및 육성 정책을 펼친 덕분에 계속해서 혁신하는 기업은 경쟁력이 유지되고, 동시에 새로운 기업도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85년 AT&T가 반독점 혐의로 강제 분할된 직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운영시스템(OS)인 윈도우를 처음 출시했고, 1990년대 후반에는 미 법무부가 거대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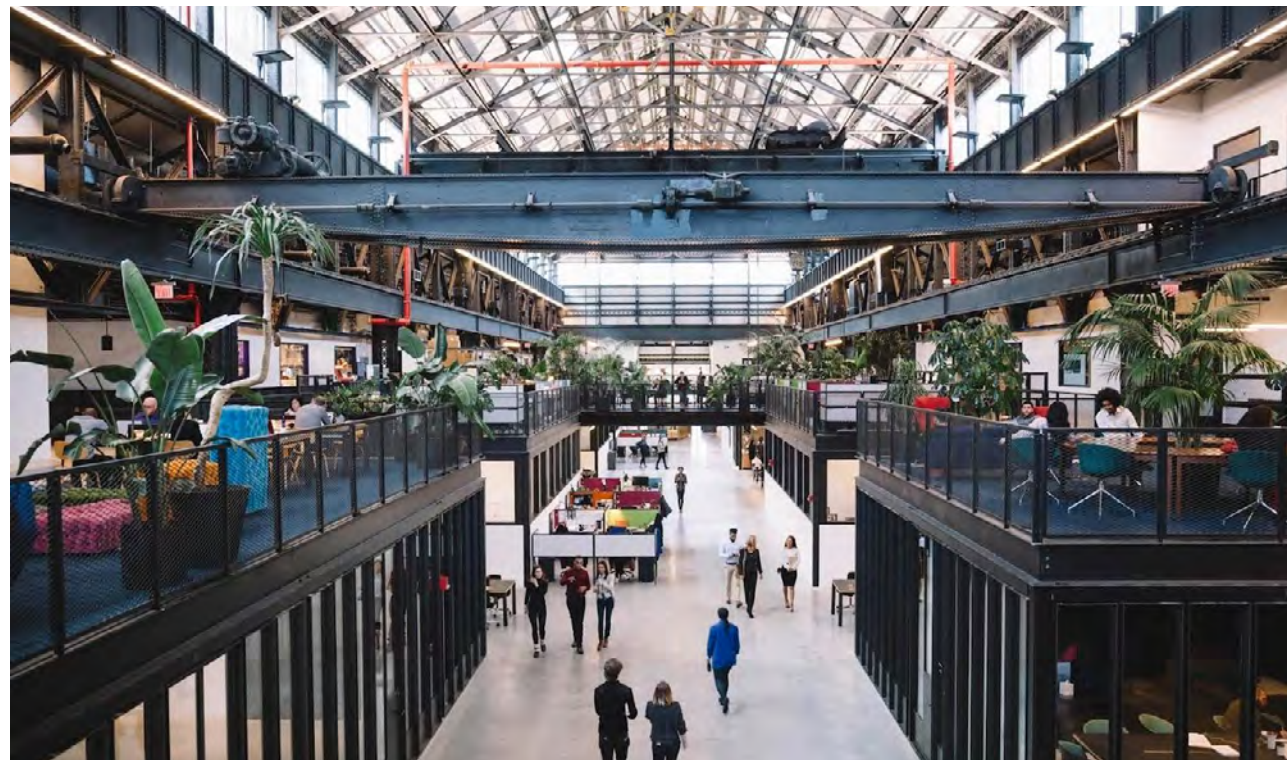
마이크로소프트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 1998년 구글의 설립과 성장을 뒷받침했다. 미 법무부는 올해 9월 구글을 상대로 20여 년 만의 최대 반독점 소송을 시작한 상태다.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부처 차원의 지원도 활발하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셀렉트USA'다. 셀렉트USA는 미국 상무부와 미국 상공회의소가 진행하는 연방 정부 프로그램으로 미국 내 기업 투자 촉진이 목표다. 2012년 설립된 이래로 1960억달러의 투자를 촉진하고, 19만8000개 이상의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셀렉트USA는 매해 '셀렉트USA 투자 서밋'을 개최하는데, 지난 5월 초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9회 행사에는 전 세계 70개국에서 36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도 배터리와 철강, 반도체 분야를 포함한 기관·기업 총 62개 사 100명이 참여한 바 있다.

주 정부 중에서는 메릴랜드주가 메릴랜드주 기술개발공사를 통해 지역 내 스타트업 지원 및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기업 유치 및 지원도 활발하게 진행한다.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정부 관계자, 투자자,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미·중 갈등 상황이 한국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끊어진 가운데, 새로운 혁신 동력이 필요한 미국, 넓은 시장과 투자자가 필요한 한국이 활발한 교류와 협업을 통해 양국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더밀크는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크로스보더 미디어 스타트업이다. 실리콘밸리, 뉴욕, 애틀랜타, 서울 등 주요 거점에서 혁신 트렌드 콘텐츠(기사, 리포트)를 제작,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초 380만달러 규모 시리즈A투자를 유치했다.



▲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뉴랩' 전경 (출처: Newlab)



스타트업 네이션 프랑스, 지방외교에도 스타트업이 주인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프랑스사무소, 김형진 선임위원

“스타트업 네이션”이란 단어는 이스라엘의 눈부신 경제 발전을 분석한 에세이 책자의 제목으로 2011년 처음 등장했지만, 적어도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재선도전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움으로써, 마치 프랑스를 지칭하는 용어인 양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은 “스타트업 육성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주장하며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며 친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추진했고, 노조와 파업, 사회복지 등 기업활동에 발목을 잡기로 유명한 프랑스가 경이롭게도 2020년 이후 유럽에서 기업투자 경쟁력이 제일 높은 국가로 발돋움 하였다.

글로벌 회계법인 EY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1,259개의 글로벌 기업투자가 프랑스 국내에 이뤄짐으로써 프랑스는 영국과 독일을 제치고 4년 연속 유럽 제1의 투자국이 되었고, 이러한 우세 동향은 2030년까지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프랑스가 이렇게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 데에는 물론 중앙 정부의 과감한 개혁정책도 기여한 바 크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들이 각 지방마다 적극적으로 병행 추진되었다는 점 또한 성공 요인으로 언급하여야 할 것이다.

기초(commune) - 중역(département) - 광역(région) 3단계의 자치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경제개발에 대해서는 광역자치체인 레지옹(Région)에 부여된 권한이 많은데, 프랑스 본토 13개 레지옹에서는 저마다 지역의 잠재성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전개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접한 교원들이 한데 모여 조합 형태로 결성한 전국 22개의 “메트로폴(Métropole)” 역시 스타트업 활성화의 주역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레지옹과

메트로폴의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 가운데 지방외교, 즉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교류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두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프랑스 지방외교, 실리추구 다주체 교류 지향 - 스타트업은 좋은 교류테마

1950년대 2차대전 이후 동·서 냉전 시기, 전쟁의 참화를 경험한 국민들은 도시간 교류를 통해서라도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고, 1950년에서 1960년대 초반까지 프랑스와 독일의 도시 간 자매결연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한 도시교류는 그 후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반구-남반구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원조형 연대교류 형태로 활발해졌고, 국가간 이동이 빈번해지는 8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그야말로 도시 외교의 성격으로 변모해 온 바 있다.

오늘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 지방정부에서는 관이 나서서 배타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자칫 형식적인 의전과 선언적 효과에 머물기 쉬운 전통적인 개념의 자매결연보다는 시민단체, 문화계, 청소년, 기업체, 각급 학교, 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가 연대하여 함께 참여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실리추구 다주체 테마별 교류사업이 지방외교의 대세가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타트업 지원이야말로 지방외교 활동의 이상적인 테마로 손꼽히고 있는데, 스타트업은 태생적으로 글로벌 개방성 속에서 창조력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큐베이팅 과정이나 런칭 후 판로 개척과정에서 해외 진출 기회제공은 많은 창업인들이 희망하는 대표적인 인센티브가 되고 있다.

일-드-프랑스 방문단에는 스타트업 대표단 동행 참가, 실질적 경제 효과 도모

일-드-프랑스(Ile-de-France)는 본토에 있는 13개 레지옹, 즉 광역 지방정부의 하나이다. 면적으로 따지면 본토의 2.2%에 지나지 않으나 본토 전체 인구의 18.8%가 살고 있으며, 프랑스 국내총생산 가운데 31%를 차지할 만큼 프랑스 경제활동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다.

수도 파리를 비롯해 유럽 최대 비즈니스 단지 라데팡스, 여의도 공원 15개를 합친 만큼 넓은 공간에 자리잡은 초대형 스타트업 캠퍼스 “스테이션F” 등 중요한 경제 인프라가 대거 밀집되어 있고 박사과정 연구 인력의 39%가 일드프랑스에 집결해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많은 R&D 투자자출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손꼽힐 만큼 기술혁신 분야의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산업 입지를 감하여 일드프랑스 레지옹 정부는 국제교류 활동에 있어 스타트업을 최일선에 내세우고 있다.





일드프랑스 광역단체장 발레리 페크레스(Valérie Pécresse)는 지난 2023년 11월 6일부터 5일간 일본 방문 공식일정에 발전가능성 높은 17개의 혁신기업을 선정 동행 참가하게 하고, 도쿄와 교토에서 B2B 미팅과 투자 이벤트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일본 미션에 선정된 17개의 혁신기업에는 대형 건축자재 3D 프린터 기업 Xtree를 비롯, 원격 기후 계측 솔루션 Cimet électronique, 친환경 프리미엄 패션기업 Lo Neel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였는데, 이와는 달리 지난 9월말 캐나다 퀘벡주 방문에는 인공지능 분야로 테마를 한정하여 6개의 지역기업이 대표단에 참가하기도 했다. 일드프랑스와 퀘벡주는 2007년부터 우호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 4년 단위로 교류사업 어젠다를 갱신 채택하고 있고, 이처럼 신기술 분야의 스타트업 교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번번이 포함되고 있다.

• 오베르뉴-론-알프 레지옹과 리옹 메트로폴 Big booster 프로그램

오베르뉴-론-알프 Auvergne-Rhône-Alpes 레지옹은 수도권 일드프랑스 다음으로 스타트업이 활발한 지역이다. 전통적으로 산업이 발달한 리옹, 그르노블, 클레르몽-페랑, 상베리, 안시 등 큼직한 도시들이 소재해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레지옹 정부가 일찌감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전개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에코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었다.

스타트업 지원과 국제교류 사업을 접목한 Big booster 프로그램 역시 지역 스타트업 활성화에 효과적인 지원 정책으로 손꼽을 수 있다. 리옹시는 미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도시인 보스턴시와 자매도시 관계이고, 보스턴에는 스타트업 분야 올림픽으로 잘 알려진 “Mass Challenge” 프로그램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리옹 메트로폴은 오베르뉴-론-알프 레지옹과 협력하여 지역

스타트업 개발자가 보스턴 “매스 챌린지”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를 개발하였고, 선정된 기업은 “Mass Challenge” 인큐베이팅 과정을 경험케 함으로서 보다 경쟁력있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Big booste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100여 스타트업을 선정 2개월간 부트 캠프를 통해 다시 20개 후보를 선정하여 보스턴에 파견, 매스 챌린지에 참여하여 4개월간의 인큐베이팅 끝에 최종 선정되는 3개의 스타트업에 약 10만유로를 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리옹 메트로폴과 오베르뉴-론-알프 레지옹의 이러한 노력은 좋은 결실을 맺고 있어서, 2023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한 CES 박람회에 레지옹 대표단과 함께 지역 36개 스타트업의 제품 전시가 이뤄졌고 그중 30개 기업은 직접 현장에서 홍보 판촉 활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는 전체 프랑스 수출 기업의 1/5이 넘는 숫자였다.

그 외에도 항공우주산업의 메카인 툴루즈 메트로폴, 친환경 첨단산업이 발달한 몽펠리에 메트로폴,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보안 분야가 발달한 렌스 메트로폴 등 프랑스 대부분의 거점도시들은 프렌치 테크 라벨을 부여받아 첨단산업 스타트업을 활성화 하고 있고, 스타트업 상호 교환 인큐베이팅, B2B 활동, 산업단지 투자유치 등을 국제교류 활동 프로그램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 국내 정책은 물론 외국 지자체와의 교류 활동에 있어서도 이렇게 지역 산업과 경제성장 효과 창출을 우선 고려함으로써 지방의 잠재가치를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론을 고민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방외교의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된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영국정부의 노력과 지방외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영국사무소장 유희숙



영국은 근대 과학의 역사가 시작된 곳으로 오랜 역사와 경험, 축적된 자원을 바탕으로 아직도 세계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핵심 국가 중 하나이다.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100명에 이르고 세계 10대 대학 중 4개 대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용도 1% 논문과 10% 논문 확보 순위가 세계 3위이다. 위와 같이 오랜기간 축적된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영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고 있다.

• 미래시대를 위한 과학기술의 활용과 스타트업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찍이 창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온 영국은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유명 대학과 캐터펄트와 같은 전문기관에서 주로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및 촉진 기능(Business incubators and Accelerators)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스타트업 기업에게 기술지원, 멘토링 및 자금을 제공하여 성장을 돕는다. 이를



통해 초기 기업들은 구조화된 프로그램과 뛰어난 전문가 및 투자자 네트워크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더불어 영국 정부는 은행을 통해 창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스타트업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아주 낮은 이자율의 대출이 이루어지며 이와 더불어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세제 감면 혜택을 주어 장려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의 자금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및 피어 투 피어(P2P) 대출과 같은 대체 자금 옵션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영국혁신청(Innovate UK)은 대부분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정부자금 지원을 통해 전국에 걸쳐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창업지원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리시 수낙 정부의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담은 '영국 과학기술 프레임 워크'를 발표하였는데 이중 강조된 것이 국제 과학기술 협력기금(International

Science Partnership Fund) 조성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 국제협력력을 강화하는 조치였다.

• 영국-한국 지방외교에의 새로운 움직임

영국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교역 채널을 다양화하고 국제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기술이 탄탄한 한국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거듭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중앙정부에 그치지 않고 영국의 지방정부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의 한국과 영국 지방정부간 국제교류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역과 기초 통틀어 총 10개 지역간 우호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런던광역시와 서울특별시, 글로스터시와 경기도 파주시 간의 교류 외에는 코로나 이후 실질적 교류가 저조한 실정이었다. 특히 영국내 지방정부는 국제교류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있더라도 EU내 국가나 영연방 국가에 한정되고



있다는 인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6월 광역리버풀과 부산광역시, 그리고 8월 벨파스트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간의 우호교류는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 아닐 수 없었다. 영국의 지역연계 혁신기관(Connected Places Catapult)이 주도해서 이루어진 부산시와 광역리버풀간 우호협력 내용을 살펴보면 메타버스, 수소에너지, 빅데이터 관련 기업들간 상호 방문하고 이와 관련 공동연구와 협력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 도시간의 경제, 기술, 산업 협력을 위한 플랫폼 기능은 테크노파크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종시는 벨파스트시와 ‘지능형 도시, 사이버 보안, 국제행사 공동참여’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우호협력을 체결하였으며 동시에 북아일랜드 무역투자청과

세종테크노파크 간 협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간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디지털, 수소, 탄소 제로’ 등의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실증 지원사업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제조업 강국, 한국에 대해 높아진 관심에 더하여 실리적인 협력 모델을 찾은 결과물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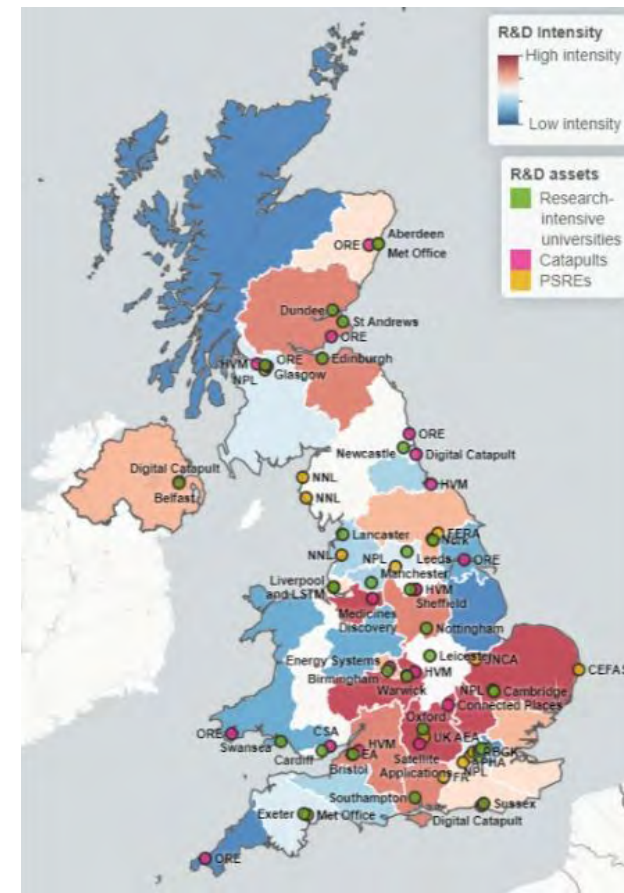
•• 쉽지 않은 실효적 외교관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서

영국은 지역별로 강점이 있는 연구분야를 서로 달리 하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우수 연구혁신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간 대부분의 영국 연구개발, 혁신 시스템이 중앙집권적이고 정부의 정책 수립시 지역차원의 의견 및 우선순위 반영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영국정부는 지역별 연구개발/혁신 정책 입안 절차를 검토하여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수렴하고 지역별 우수 클러스터 지원, 지역차원의 신규 투자 프로그램 및 파트너십 추진, 산학연 및 공공-민간 분야의 네트워크 강화, 민간 및 해외 투자유치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캐터펄트 센터, 혁신센터 및 대학교 등 기존 공공 연구기관 및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인재양성, 중소기업 지원,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기술 이전 등과 같은 성과중심 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특화된 강점이 있는 혁신기관이나 대학이 많이 있다. 이러한 기관이 주도하여 교류하고 이에 따라 확대된 신뢰공간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우호협력을 추진한다면 한영 지방정부간 외교확대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전북 테크노파크에서는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시장진출 수요기업 컨설팅’을 위해 영국을 방문하였다. 사전에 해외시장진출 수요기업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상기업별 IR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한 이후 수요기업과 현지기업간 기술 교류를 진행하였다. 특히 배터리 분야의 연구개발과 양산 사이의 간극을 연계하기 위해 영국의 국립배터리산업화지원센터(UKBIC)를 방문하여 효과적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지원 방안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영국 및 EU에서 진행하는 저공해 차량 및 인프라 구축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새로운 저공해 차량에 대한 비즈니스 사례를 구축하는 CENEX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지방정부간 외교에 앞서 위와 같은 과학기술혁신기관간의 활발한 접촉과 실질적 교류를 기대해 본다.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 김정호 부연구위원



지역 예비유니콘의 현황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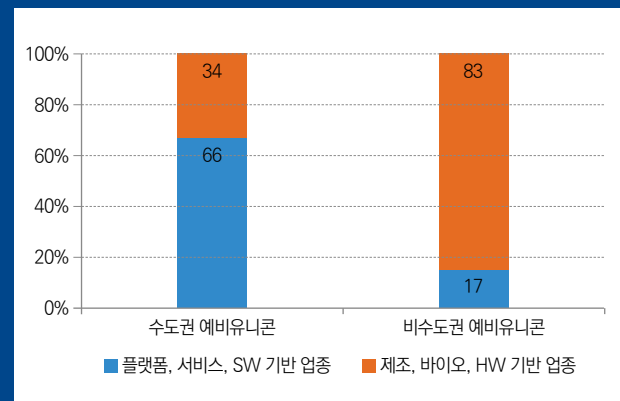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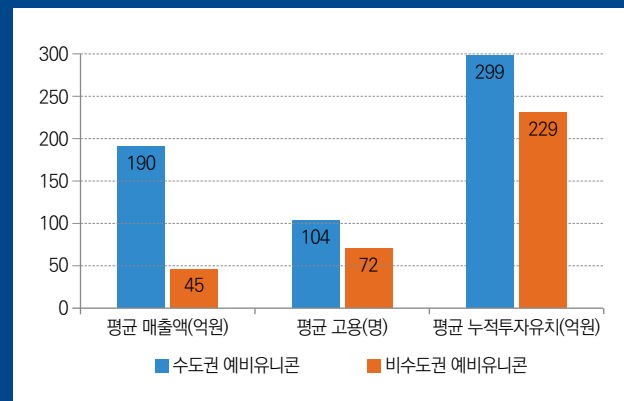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고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 원) 이상인 유니콘(Unicorn)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고, 국내에서 2022년까지 34개 유니콘이 출현했다. 또한 유니콘의 이전 단계로서 기업가치 1천억 원(약 1억 달러) 이상 1조 원 미만 또는 누적투자유치 100억 원 이상인 예비유니콘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K-유니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예비유니콘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형 투자유치가 쉽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유니콘보다 예비유니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까지 정부가 선정한 예비유니콘 70개 중 12개(17%)가 비수도권에 위치한다. 최근 비수도권 지역에서 기술기반 예비유니콘이 증가했고, 이들은 지역 신산업과 연계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또한 예비유니콘은 지역 내 다른 스타트업의 창업과 집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성장 목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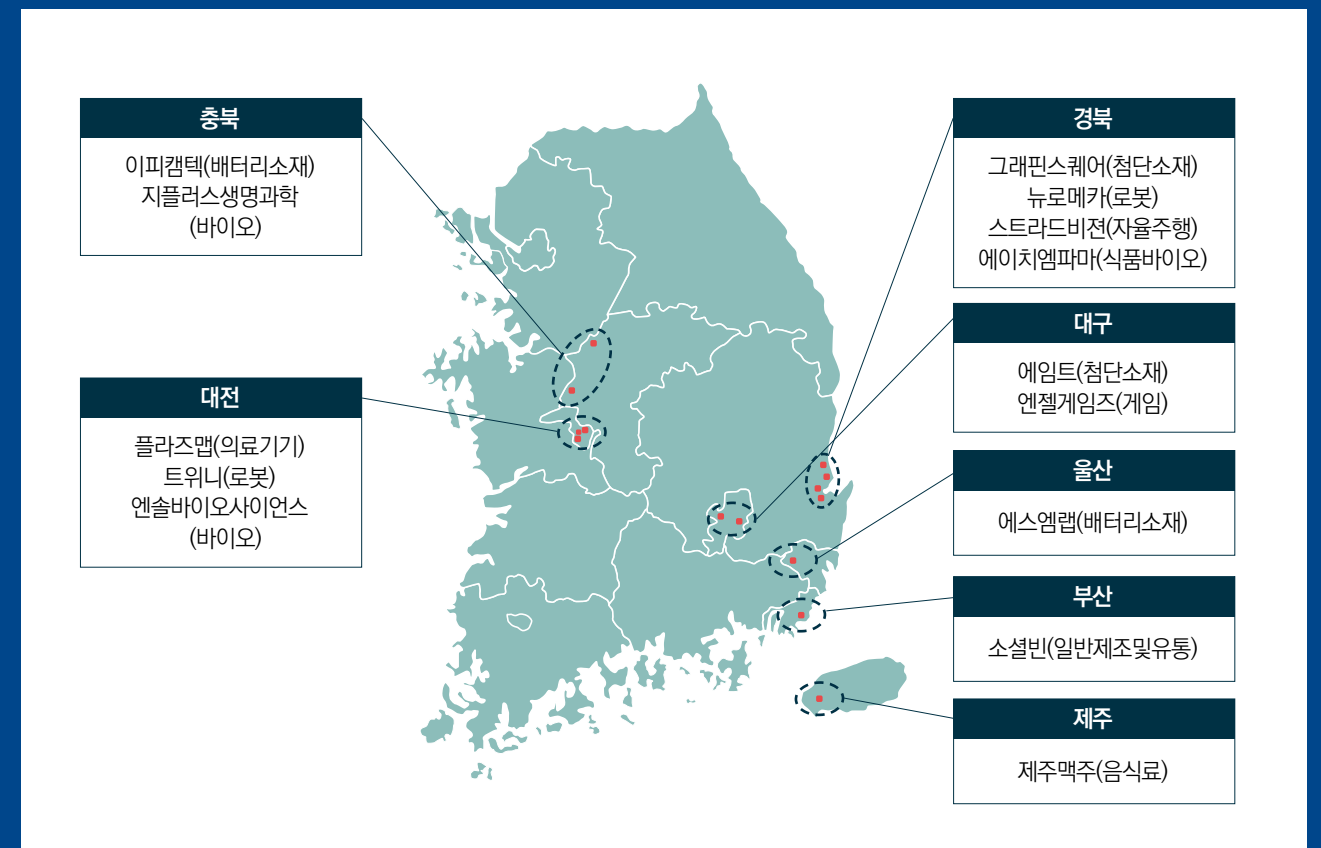
지자체에서 예비유니콘에 관한 관심을 두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 예비유니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예비유니콘 특성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역유형별 예비유니콘의 기반 산업 및 업종 특성, 창업과 스케일업 과정의 특징 차이를 이해해야 지역의 차별화된 지원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정부가 선정한 예비유니콘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비유니콘을 비교해 보면 이런 차이를 알 수 있다. 수도권 예비유니콘의 매출액, 고용, 누적투자유치액 평균은 각각 190억 원, 104명, 299억 원이다. 반면 비수도권 예비유니콘의 매출액, 고용, 누적투자유치액 평균은 각각 45억 원, 72명, 229억 원이다. 두 유형의 예비유니콘이 평균 업력은 비슷이지만(약 7년) 규모 차이가 큰 것은 기반 산업·업종에 따라서 스케일업(scale-up: 기술개발 후 본격적 사업화, 매출·고용 성장)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 간 예비유니콘의 규모와 기반 업종 비중 비교〉



〈지역 기반 예비유니콘의 분포〉

예비유니콘의 약 66%는 창업 후 스케일업까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IT플랫폼·서비스, 소프트웨어(SW) 업종에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 예비유니콘의 약 83%는 스케일업이 오래 걸리는 제조, 하드웨어(HW), 바이오 관련 업종에 있다.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예비유니콘의 상대적 매출 수준(24%)에 비해 상대적 고용 수준(69%)이 더 높은 점은 비수도권 예비유니콘의 기반 산업·업종 특성상 단기 시장성고가 낮더라도 고용 효과가 있고, 산업·업종의 스케일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비수도권 예비유니콘은 대전, 경북(포항), 대구, 충북(청주), 울산, 제주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공통점을 가진다. 첫째, 이들은 기술, 산업, 고급·전문인력, 산학연 협력 기반을 갖추어서 기술창업과 성장에 유리한 지역에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 창업했지만 스케일업을 위해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 특정 지역의 신산업(로봇, 신소재, 바이오, 배터리) 생태계, 산학연 협력의 이점을 누리고자 다른 권역으로 기반을 옮긴

예비유니콘(뉴로메카, 그래핀스퀘어, 지플러스생명과학 등)도 있다. 둘째, 창업자들은 대부분 관련 업종에서 5~7년 이상 실무·이전창업 경험, 기술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창업했다. 셋째, 이 기업들은 B2C(일반소비자 고객)보다 B2B(기업 고객) 기반의 매출 구조와 비즈니스모델을 가진다. 이런 특징들은 예비유니콘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지역의 창업생태계뿐만 아니라 신산업 또는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식 확산, 수요·공급 기업 간 밀접한 협력과 교류, 인적 자원의 공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향후 지역산업 기반의 기술·숙련 창업 활성화, 신산업의 육성과 관련 생태계 조성, 지역 기반 벤처투자가 확대되면 예비유니콘이 더 나올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력산업의 신산업 전환과 예비유니콘 지원 간 연계, 수요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스타트업의 실증 기반 확대, 지역 스타트업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사업 내실화, 스케일업을 위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 지원 등이 중요하다.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성영조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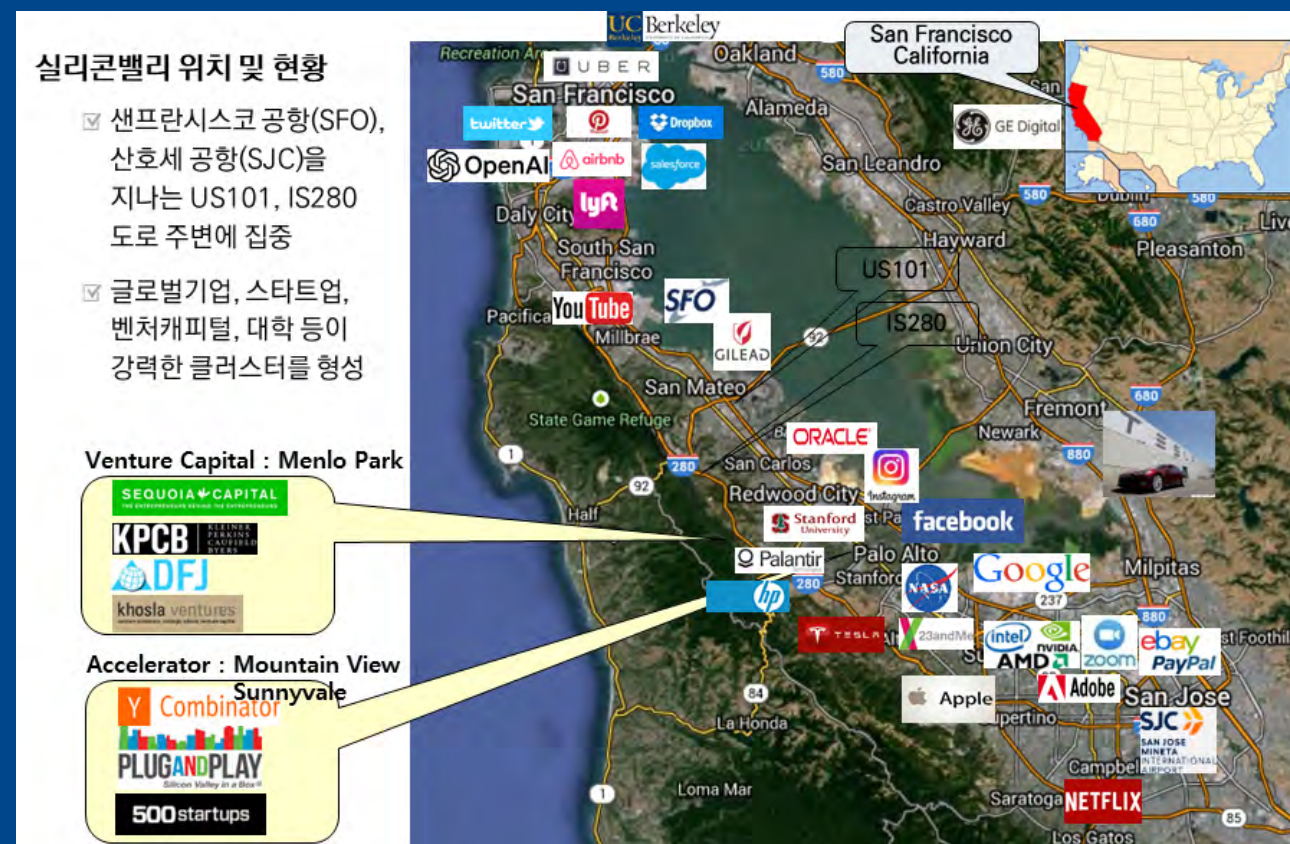


실리콘밸리 혁신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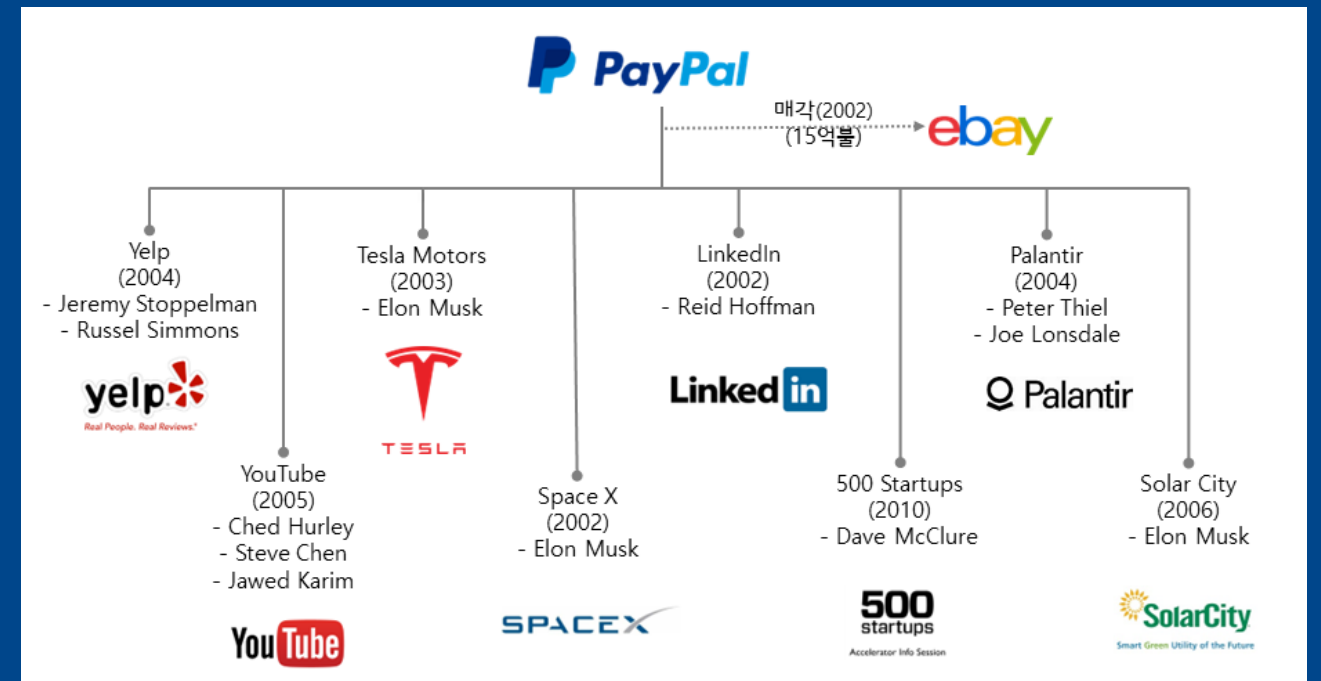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 산호세(San Jose)에 이르는 인공지능, 인터넷, 전기전자, 플랫폼, 바이오 등 첨단기술기업의 집적지역을 통칭하며 행정구역으로는 산타클라라(Santa Clara), 산마테오(San Mateo), 알라메다(Alameda) 그리고 산타크루즈(Santa Cruz) 4개의 카운티로 이루어진 지역을 의미한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혁신클러스터 사례를 언급할 때 항상 등장하는 곳이지만 실리콘밸리를 이루는 4개 카운티 실제 면적은 4,800km²(1,854제곱마일)로 경기도의 절반 크기에 달하는 매우 넓은 지역이다.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공항(SFO)에서 산호세 중심에 있는 산호세 공항(SJC) 사이 50km(30마일) 공간에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과 같은



▲ 그림 1. 실리콘밸리 혁신생태계 지도 (자료: 구글맵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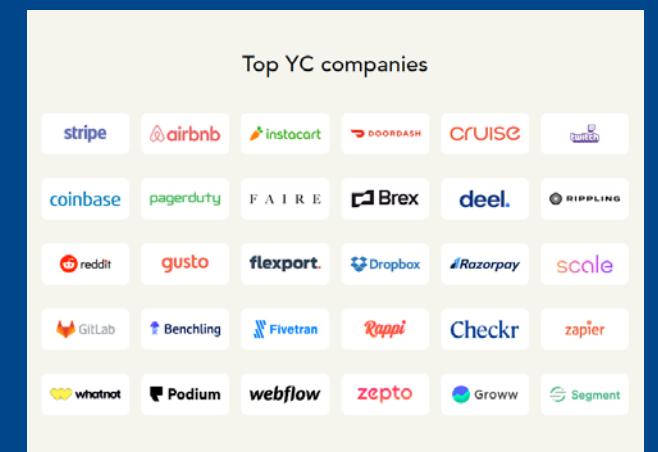
▲ 그림 2. Paypal 출신들의 창업기업 현황 (자료: 저자 작성)

첨단 인터넷 기업뿐 아니라 인텔, 엔비디아, 시스코, AMD 등 첨단 하드웨어 기업이 입지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회사인 오라클, 동영상 공유플랫폼 유튜브와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역시 이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1호 벤처기업이라 할 수 있는 휴렛팩커드(HP)는 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핀테크 기업인 페이팔(PayPal) 역시 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장하였는데, 페이팔 창업자와 임직원들은 페이팔을 이베이(eBay)에 성공적으로 매각한 후 매각 자금을 바탕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유튜브, 링크드인, 테슬라, 팔러티어 등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혁신적인 기업을 창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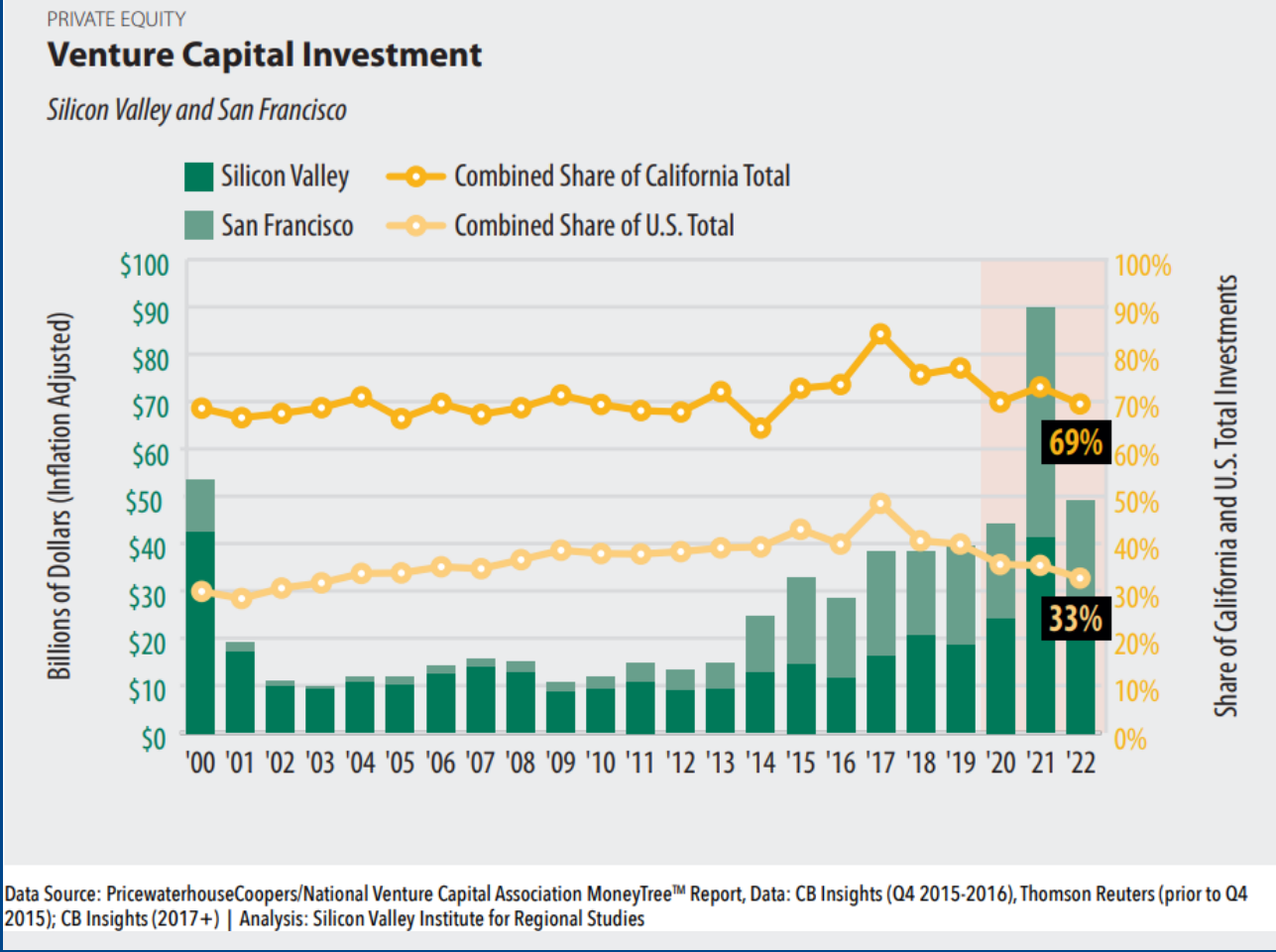
샌프란시스코에는 SNS 기업 X(구 트위터), 핀터레스트, 링크드인 외에도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버, 리프트,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이 입지하고 있으며, ChatGPT를 개발하여 거대 언어모델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Open AI 역시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는 전통적인 실리콘밸리 지역보다 스타트업이 창업하고 성장하기에 더욱 적합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실리콘밸리라고 인식되기도 한다. 실리콘밸리가

시작된 곳이라 할 수 있는 팔로알토 지역에 위치한 스탠퍼드대학은 우수한 인재들을 끊임없이 배출하면서 실리콘밸리 혁신의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은 창업 이후 성장 과정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도움이 필요하다.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스타트업 지원 역할을 하는 창업기획자를 의미한다. 액셀러레이터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데모데이를 위한 피치, 투자자 연결, 법률 자문 등 스타트업의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전문적인 부분의 멘토 역할을 담당한다. 실리콘밸리에는 Y Combinator, Plug



▲ 그림 3. Y Combinator 출신 주요 기업 (자료: Y Combinator)



▲ 그림 4.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투자 (자료 : Silicon Valley Index 2023)

and Play 등 스타트업들이 가장 선망하는 엑셀러레이터가 다수 활동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미국과 캘리포니아 벤처캐피탈 투자금액은 각각 1,504억달러, 707억달러에 달했다.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 지역에는 492억달러가 투자되었으며, 이는 미국 투자의 33% 캘리포니아 투자의 69%에 달하는 규모이다. 실리콘밸리 지역은 스타트업이 자금을 조달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임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에는 KPCB, Sequoia Capital, Khosla Ventures 등 최고 수준의 벤처캐피탈 기업이 다수 입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이 많은 투자를 이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리콘밸리에는 창업 초기단계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수준 높은 엑셀러레이터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33% 이상의 벤처캐피탈 자금이 투자되는 상황에서 최고 수준의 벤처캐피탈 회사가 다양한

혁신기술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M&A가 활발히 진행되는 이 지역의 특성상 많은 스타트업이 M&A를 통해 성공적으로 엑시트(EXIT)하고 다시 연쇄창업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꿈꾸는 훌륭한 인재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것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고 혁신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리콘밸리에는 성공한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때 승승장구하던 기업도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1990년대 유닉스(UNIX) 시장을 주름잡았던 Sun Microsystems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강자 Silicon Graphics가 이에 해당한다. 두 회사 모두 1982년에 설립되었으며, Silicon Graphics는 2009년에 파산했으며 SUN Microsystems는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2010년

Oracle에 인수되었다.

Sun Microsystems는 고비용의 메인프레임 컴퓨팅 시장을 유닉스 시장으로 다운사이징한 선도적인 기업이었으며, 구글 Android 운영체제 개발에 사용된 JAVA 언어를 개발하기도 했다. Silicon Graphics는 쥘라기공원, 터미네이터2 등의 영화에서 3차원 컴퓨터그래픽 기술로 특수효과의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였다.

Sun Microsystems와 Silicon Graphics 본사 위치는 각각 Menlo Park, Mountain View 등 실리콘밸리 내에서도 비교적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회사가 사용하던 본사는 현재 세계 최고의 인터넷 기업인 페이스북과 구글이 각각 사용하고 있다. Sun Microsystems 본사는 현재 페이스북이 사용하고 있으며 Sun 로고가 있던 표지판은 뒤집어서 뒷면으로 향하게 하고 앞면에는 페이스북의 상징인 ‘좋아요’ 이미지가 오도록 하였다. 혁신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sun의 로고를

뒷면에 그대로 사용했다고 한다. Silicon Graphics 본사는 구글에서 일부 인테리어를 수정하여 현재 Googleplex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가장 대표적인 회사 캠퍼스로 알려져 있다.



▲ 그림 5. SUN Microsystems & Facebook



▲ 그림 6. Silicon Graphics & Google



한-중앙아 지방협력 원탁회의



한-중앙아 지방협력을 강화하고자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가 주최한 ‘한-중앙아 지방협력 원탁회의’가 지난 9월 2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원탁회의는 중앙아 5개국과 한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증진하고 지역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외교부 장관급 회의인 ‘한-중앙아 협력 포럼’과 2024년부터 연계를 목표로 발족하였다.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등 지자체 국장급 인사와 중앙아

5개국 대사, 외교부 및 학계에서도 참석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한-중앙아 지방협력 원탁회의’라는 다자간 교류 플랫폼을 통해 협의회와 해외사무소가 없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지자체간 교류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Nurgali ARYSTANOV(누르갈리 아리스타노프) | 주한카자흐스탄대사

얼마 전 한-중앙아 국회의장님들이 한국에서 만났고 새로운 C5+K 국회의장 회의가 출발하였습니다. ... 한-중앙아 지방협력 포럼을 시기적절하게 출발시키는 것이 한-중앙아 향후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대사관은 이 initiative를 계속 지지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Aida ISMAILOVA(아이다 이스마일로바) |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지방정부는 사회 및 경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지역사회 관계를 강화하는데 심장 역할을 합니다. ...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경험과 성과를 높이 평가합니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서 한국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Salohiddin KIROM(살로히딘 키롬) | 주한타지키스탄대사

타지키스탄은 대한민국을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한-중앙아 협력포럼의 틀 안에서 진행되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합니다.



Begench DURDYEV(베겐치 두르디예프) | 주한투르크메니스탄대사

투르크메니스탄이 의장국 자격으로 제16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2023년 11월 1일 아슈하바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 올해 3월 말 서울과 의정부에서 투르크메니스탄 문화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 대사관은 다양한 장식 및 응용예술작품 전시회, 양국 문화 대행사들의 합동 콘서트, 투르크메니스탄 영화 상영도 개최했습니다.



Alisher ABDUSALOMOV(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 주한우즈베키스탄 경제참사관

(우즈베키스탄) 외교부장관님께서 9월에 한국을 방문해 약 3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참여한 그런 한-우즈베키스탄 포럼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 우즈베키스탄은 각 지방 간 또는 지자체 간 결연을 맺고, 또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섬유, 제약 산업에 있어서 한국기업들을 저희가 찾아 매칭하고 또 협력을 구축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14회 주한외국공관장 초청 간담회 개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이철우(경상북도지사)는 12월 1일(금)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2023년 주한외국공관장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시도협 회장 주관 주한외국공관장 초청 간담회는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연례행사로 2023년 초청 간담회는 73개국 77명의 주한외국대사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철우 시도협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빅토르 분구 주한외교단장(가봉대사)이 축사를 했다. 특히 협의회와 주한외교단(Council of Diplomatic Corps)이 올해 5월에 협력 MOU를 체결한 것은 지방정부 교류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의미가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대구광역시의 '2024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 강원특별자치도의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군산시의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 & 새만금 전국마라톤대회'를 발표하여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2024년도에 개최하는 지방정부의 주요 국제행사를 자료집에 담아 행사 홍보물과 함께 대사들에게 전달하는 등, 지방의 국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홍보하는 장이 되었다.



“

이철우 | 경상북도지사

2010년에 22명으로 시작한 본 행사가 14년이 지난 지금은 80여명의 대사님들을 모시는 의미 있는 연례행사로 성장한 것은 지방외교에 대한 대사들의 관심과 지원을 대변합니다.

”



“

빅토르 분구 | 주한가봉대사

주한외교단(Council of Diplomatic Corps)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5월 협력 MOU를 체결하여 지방정부 간 외교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미르 쿠센 | 주한크로아티아대사, 건배사



편집후기

GLOCALISM QUARTERLY 매거진은 한국 지방정부의 외교활동을 전하며, 4개 주요 섹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지방외교 활동>은 한국 광역시도의 지방외교 활동을 다룹니다. 경제, 통상,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주제별로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 <해외 지방외교 활동>은 해외 지방정부의 지방외교 활동을 소개합니다. 특히 6개 협의회 해외사무소에서 현지 지방정부가 전개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소개함으로써, 한국 지방정부가 협력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세 번째로 <지방외교 협력파트너>는 매거진 매 호별 주제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소개하고 전문가의 견해를 실습니다. 제4호(2023 겨울)은 “스타트업 코리아와 지방외교”를 주제로 국내와 국외(미국)에 대한 전문가의 기고문을 담았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외교 뉴스>는 주한외국공관, 국내외 국제교류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협의회가 주한외국공관과 함께한 행사를 소개하고 참석 대사님들의 소감과 다짐을 넣었습니다.

2023년 봄호를 창간호로 하여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국 지방정부의 외교활동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본 매거진이 ‘지방외교’의 의미를 전달하고, 지자체 국제교류활동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GLOCALISM QUARTERLY 매거진

2023 겨울, 제4호

발행일	2023년 12월 27일
발행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철우
편 집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협력부
영문에디터	Bazil (Joseph) Manietta
주 소	03186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문 의	02-2170-6041